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등급화와 등급 보정 절차 연구

최소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 부연구위원

- * 이 논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교육부 수탁과제(비연구)인 ‘한 학기 한 권 읽기 웹 서비스 구축 수행’의 일부와 관련이 있으나, 필자가 개인 연구자로서의 견해로 논의·제언하는 것이므로 추후 이어질 과제 실행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I. 연구 목적
- II. 선행 연구
- III.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선정 및 어휘 정보 구축
- IV. 어휘 등급 설정 및 등급 보정 절차 구상
- V. 결론 및 제언

I. 연구 목적

국어 어휘¹⁾를 선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문교부(1955, 1956)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국어 교육계의 오랜 관심사이다. 국어생활 전반에서 근간을 이루는 어휘에 대한 조사와 선정(임지룡, 1991; 이삼형·박진호·최형용·김정선·이승연·이현주 외, 2018 등), 특정 교육적 목적에 적합한 어휘에 대한 조사와 어휘 선정 연구(김광해, 2003; 김한샘, 2010; 박재용, 2010, 2012; 강보선, 2013; 강현화, 2014; 윤지훈·양윤정·전효선·안종욱·김혜연·윤천탁 외, 2016; 이경남·박혜림·이경화, 2018 등) 등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중 김광해(2003), 이삼형 외(2018)는 연구 목적은 상이하나 어휘 선정에 더하여 어휘를 일정 수준에 따라 등급화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본고의 주된 관심사인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어휘에 대한 대규모 조사 또는 어휘 선정 관련해서는 문교부(1956)를 비롯하여, 후대 다수 연구의 어

1) ‘어휘’는 통상 개방 범주(내용어)를 가리키나, 폐쇄 범주(기능어)까지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본고에서의 ‘어휘’는 개방 범주를 뜻한다.

휘 목록 선정에 인용된 이응백·이인섭·김승렬(1982), 국어연구소(1987ㄱ, 1987ㄴ)와 국립국어원의 연구(서상규·유현경·봉미경·강신아·김선훈, 2009; 김한샘, 2009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양정실·권점례·신호재·박재현·오필석·이미미, 2015) 등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교과서’ 또는 ‘교과서와 어린이 도서 및 초등학생 작문 자료’ 등에서의 어휘 출현 정보를 조사하여 어휘를 목록화하거나, 그에 국어교육 연구자들의 협의 과정을 더하여 교육용 수준별 어휘를 선정했다. 여기서 어휘의 수준 설정 기준으로서 ‘학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1학년용 어휘’, ‘2학년용 어휘’ 등). 이는 중등학교급 어휘 선정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²⁾ 어휘량의 연간 증가율이 8~12세 시기에 폭증하는 발달적 특성(김광해, 1997)으로 인해 학년에 근간한 어휘 수준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연구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거나 연속 연구로 기획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선행 연구 성과로 구축된 어휘 목록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초등학교급 교육 목적의 어휘에 대해 여러 목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오늘날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및 수준에 대한 급간 구분, 즉 등급 설정과 등급에 대한 조정의 근거 역시 선행 연구 성과로부터 일반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선정된 어휘 및 설정된 어휘 등급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역시 부재하였던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및 등급화와 등급 보정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목록을 구축하여 등급화를 수행하고 초등학생 대상의 어휘 평가 결과 분석을 근거로 한 등급 보정 절차를 구상하고자 한다. 즉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답하도록 한다.³⁾

2) 국어연구소(1988, 1989)에서 중학교 교과서 어휘의 빈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중학교 교육용 어휘 선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3) ①은 필자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이하 ‘언어정보연구원’)과의 협의로 수행된 한

①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어휘가 학습되어야 하는가?

- 초등학교에서 학습해야 하는 어휘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목록’을 구축한다.

②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목록에서 개별 어휘의 등급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등급화를 수행한다.

③ 교육용 어휘 등급 설정의 타당성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으며, 등급은 어떻게 보정될 수 있는가?

- 등급별 어휘에 대한 학생 대상 평가를 설계하고, 연구자들이 설정한 등급의 타당성을 평가 결과를 근거로 검증하며 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절차를 구상한다.

참고로, 초등학교급 수준의 어휘와 관련된 명칭으로는 ‘기초 어휘(이삼형 외, 2017, 2018)’, ‘기본 어휘(이충우, 1990)’, ‘교육용 기본 어휘(서상규 외, 2009)’, ‘교육용 기초 어휘(장현진·전희숙·신명선·김효정, 2014)’, ‘교육용 어휘(국어연구소, 1987ㄱ, 1987ㄴ)’ 등이 폭넓게 연관되며, 각각의 명칭이 초점화하는 의미도 서로 다르다. 이 중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는 교육적 목적을 상정하지 않은 어휘도 포괄하되, 연구물에 따라서는 이 둘의 의미를 명확히 구별하여 다루거나(임지룡, 1991; 이희자, 2003 등) 통용되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성광수, 1999 등). 본고에서 논의하는 초등학교급의 ‘교육용 어휘’는 서상규 외(2009: 5)가 ‘학습해야 하는 어휘’로 규정한 ‘교육용 기본 어휘’의 개

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연구사업 결과가 근간을 이루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8, 22).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필자 및 전문가 집단이 일부 어휘를 추가하고, 초등학교 교사 집단의 어휘 선정 목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목록을 구축했다. ②에 대해서는 필자 및 전문가 집단의 검수와 협의를 통해, 언어정보연구원의 초기 등급화 결과의 일부를 수정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초등학교 교사 집단의 어휘 선정 목록에 대해서도 등급을 부여했다. ③은 선행 연구 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방안 모색을 바탕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내용이다.

념⁴⁾을 따르되,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가 통용되기도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용 어휘’로 칭한다. 또한 교육용 어휘에 대하여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절대적 어휘가 아니고 교과서 편찬이나 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어휘’(국어연구소, 1987 ㄱ: 3)”라고 본 관점 역시 수용하여,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가변성을 허용하는 어휘로 가정한다.

II. 선행 연구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고 등급화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교부(1955, 1956)는 초·중등학교 교과서와 일반 도서 등의 텍스트에서 추출한 글자 및 어휘 목록에 대한 빈도 조사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조사 결과가 교과서 편찬에 적합한 어휘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제언하여 해당 연구가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서 국어연구소(1987 ㄱ, 1987 ㄴ)의 연구에서는 의무교육의 시작인 초등 교육에서의 어휘 선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연구물 서두부터 다음과 같이 연구 목적을 밝힌 바 있다(국어연구소, 1987 ㄱ: 3).⁵⁾

-
- 4) 서상규 외(2009: 5)에서는 ‘교육용 기본 어휘의 개념’을 다음 세 가지 면에서 규정했다.
 - 목적: 내국인의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습해야 하는 어휘
 - 내용: 단계별로 학습해야 하는 일반 어휘와 과목별, 학습 수준별로 학습해야 하는 전문 어휘
 - 범위: 취학 전 습득되었으나 재학습이 필요한 어휘와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 단계별, 수준별로 학습해야 하는 어휘
 - 5) 이러한 목적에 대한 교육적 요구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정책적 관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충우(2005: 389)는 “선정된 교육용 어휘 목록에 바탕을 두고 교육 과정 제정과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연구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교육부(2020. 10. 5.)의 보도자료 6쪽에서 어휘 등급화와 어휘 등급 보정의 필요성이 아래에 인용한 부분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 학교 아동의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의 실태를 조사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고 그것을 국민 학교 교과서 편찬에 참고하도록 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교과서로부터 추출한 어휘, 선행 연구에서의 어휘 목록, 합성어는 아니지만 합성어에 준할 수 있는 구(句) 구성 등으로부터 전문가 평정을 거쳐 1~6학년별 교육용 어휘 21,800여 어휘가 선정되었다. 이 연구는 이후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에 대한 등급의 기준이 ‘학년’이 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교급에서는 어떠한 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학습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분명하여 학생이 새로운 어휘를 처음으로 인지하는 시기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학년’을 등급 설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현진 외(2014)와 같은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에서도 학년 구분 인식이 나타난다. 장현진 외(2014)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의 선행 연구에서 구축한 어휘 목록에 대한 전문가(교사) 평정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 어휘 511어휘를 선정하였는데, 기초 어휘가 사실상 저학년용 어휘에 해당한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글 해득 단계인 초등학교 1학년용 어휘로 선정을 초점화한 이경남 외(2018)와 같은 어휘 선정 연구도 있다. 이경남 외(2018)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목록에 대해 전문가 평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어휘를 선정했다.

한편, 김광해(2003)는 어휘 등급에 관한 학년 구분 인식을 보이지는 않음

향후 계획(안)

학생들의 학습 어휘 및 사용 어휘 정보를 축적하여 학년군별 어휘 자료를 구축, 향후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교과서)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

※ 현재 국내 초등학생의 어휘 수준 관련 기반 연구가 부족하여 기초 문해력 진단 및 보정, 학습 대상에 적합한 지문의 수준 판단, 평가 문항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나, 학령기 이전전부터 학령기 이후까지의 교육용 어휘를 집대성하고 등급화한 연구이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광해(2003)는 기존에 구축된 어휘들에 대한 메타 계량의 방법을 적용하여, 국어 교육용 237,000여 어휘를 7등급으로 등급화했다. 중등학교 수준까지는 33,819어휘를 1~4등급으로 등급화하였는데, 정규 교육 개시 시기부터 사춘기 이전까지의 8,358어휘를 3등급으로 배정했다. 이 연구는 어휘의 등급화에 관한 후대 연구에서 다수 인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교육용 어휘 선정 시에도 교과서 출현 정보가 없는 어휘에 대해 초등학교 수준 어휘로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주요 준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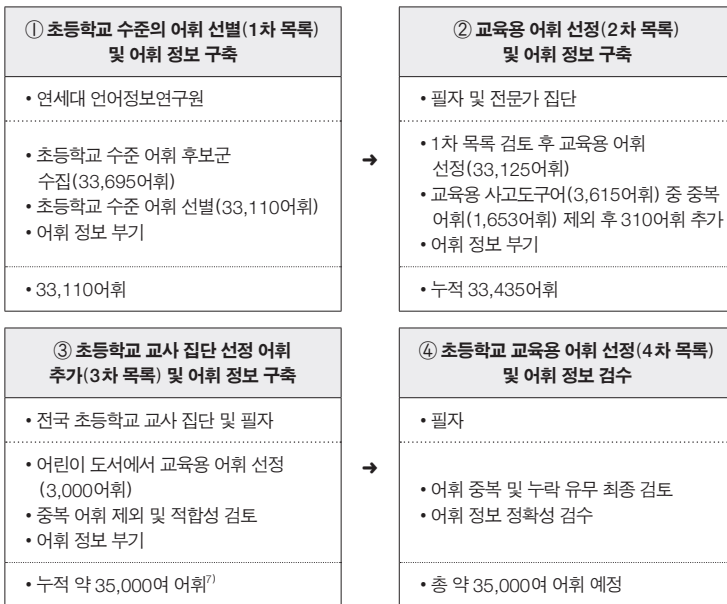
교육용 어휘를 선정한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활용한 어휘 선정의 주요 방법은 교과서·어린이 도서·초등학생 작문 자료 등으로부터 출현 빈도를 고려한 추출, 기초 어휘·기본 어휘 관련 선행 연구들의 어휘 목록으로부터의 추출, 국어사전 표제어 분석을 통한 추출 등이다. 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평정을 통해 어휘 목록 선정이 확정되도록 했다. 등급화의 방법으로는 어휘가 출현한 교과서의 학년 및 어휘가 학습되어야 할 학년을 고려한 전문가 평정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 방법을 어휘 선정 및 등급화의 기본적 방법론으로 삼았다.

III.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선정 및 어휘 정보 구축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등학교 수준의 어휘를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구축과 어휘 선정 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 분석 등이 요구된다. 이에 해당 내용을 위탁연구사업으로 발주하여 언어정보연구원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어휘 후보군으로 선정한 33,695어휘 중 초등학교 수준으로 선별한 33,110어휘를 '1차 목록'으로 삼았다. 1차 목록에 대해 필자와 전문가의 검토 및 초등학교 교사 집단의 어휘 선정 목록

추가 및 검토 과정 등을 거쳐, 교육용 어휘로 선정한 2차 목록, 3차 목록을 작성했다(〈그림 1〉 참조, III장의 1절과 2절로 나누어 기술함).

또한 교육용 어휘로의 적합성 판단 및 선정된 교육용 어휘에 대한 등급화 기준 설정과 어휘 평가 문항 출제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함께 고려했다. 이에 위탁연구사업에서 어휘마다 ‘국어사전 정보(원어, 동형어 구분 표시, 품사, 뜻풀이 등)’는 물론, 교과 전문어에 대한 판별과 초기 등급화⁶⁾를 위한 ‘교과서 출현 정보’와 ‘어휘 등급화 선행 연구들의 등급 정보’를 부기하기로 했다. 각 단계에서의 어휘 정보 정확성 검수(특히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대비 검토)는 필자 주도로 매 단계마다 이루어졌다.



〈그림 1〉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선정의 과정

- 6) ‘초기 등급’이란 일차적으로 부여한 등급이라는 의미로, 초기 등급에 대해 교육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는 ‘등급’과 구별한 말이다.
- 7) 현재까지 적합성 검토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확한 수치를 적지 못했다.

1. 초등학교 수준의 어휘 선별 및 어휘 정보 구축

먼저, <그림 1>의 단계 ①에서 기초 자료로 수집된 초등학교 수준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 ㉠ 김낙준(2014), 토박이사전편찬실(201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2020) 등 시중 초등학생용 국어사전의 표제어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전권,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전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전권⁸⁾ 등 초등학교 교과서 말뭉치로부터 추출한 어휘
- ㉢ 김광해(2003) 등 선행 연구의 어휘 등급화 목록 내의 어휘
- ㉣ 선행 연구에서 학령기 이전 수준으로 등급화된 어휘

㉣은 초등학교 수준 적합도 판별을 위한 제외 기준으로서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김광해(2003)의 1, 2등급 어휘, 조남호(2003)의 초급 어휘, 이진아·편도원·곽승철(2011)의 기초 어휘, 김수진·오경아(2014)의 학령기 전 아동 어휘, 장현진·전희숙·신명선·김효정(2013)의 영유아 기초 어휘 등이다. 이들 목록은 기초 어휘 및 학령기 전 영유아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수집된 어휘의 빈도 및 목록과의 중복도를 고려하여 제외된 것이다. 동형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준하여 구분되었으며, 품사 통용어는 각 품사 정보를 명기하되 하나의 어휘로 처리되었다.⁹⁾ 그 결과 33,695어

8) 영어과 교과서는 모두 제외하였으며, 이후 교과서 관련 논의에서도 영어과 교과서는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로, 교과서 말뭉치 확보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검토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서 출현 어휘를 대상으로 양정실 외(2015: 117)에서 ‘교과 교육과정을 표상하는 교과서 어휘’로 언급하고 목록화한 어휘들이 이미 ㉡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주요 어휘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고의 ‘어휘’는 개방 범주를 뜻하므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

휘 중 585어휘를 제외하고 33,110어휘가 1차 목록으로 선별되었다.¹⁰⁾

1차 목록으로 선별된 어휘에 대해서는 초기 등급화 및 어휘 평가 문항 출제를 위해 어휘마다 <표 1>과 같은 어휘 정보를 구축하는 것 역시 <그림 1>의 단계 ①에서 이루어졌다.

<표 1> 1차 목록에 부기된 어휘 정보

구분		세부 정보
국어사전 정보		동형어 구별 표지(‘길잡이말’), 원어, 품사, 뜻풀이
교과서 출현 정보 ¹¹⁾	교과서 최초 출현 정보	학년, 교과, 교과서명(학년-학기), 교육과정, 빈도
	교과서 최다 출현 정보	학년, 교과, 교과서명(학년-학기), 교육과정, 빈도
	최초 출현 학년과 최다 출현 학년의 일치 여부	일치/불일치

형사를 수집했다. 폐쇄 범주에 대한 학습은 문법 교육의 성취기준 위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휘 선정에서 모두 제외했다. 예를 들어, 어근과 접사를 파악하는 성취기준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6국04-02]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탐구하고 어휘력을 높이는 데에 적용한다.’에 처음 등장하며, ‘낱말 확장 방법’은 ‘파생’과 ‘합성’을 뜻한다(교육부, 2015: 36). 그러나 ‘[12언매02-03]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에서 파생과 합성이 다시 학습되는 것과 같이, 어근과 접사는 상당히 수준 높은 학습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미의 기능은 ‘[10국04-03]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한편, ‘1차 목록’은 형태소 분석 및 의미 분석이 기 완료된 자료로부터 목록이 구축되었으므로 말뭉치 정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참고로, 이삼형(2018: 54)의 처리와 같이 용언 활용형 각각은 하나의 어휘로 처리되었다.

- 10) 품사별 어휘 수는 명사 23,159개, 동사 5,637개, 형용사 1,988개, 부사 1,755개, 관형사 69개 및 품사통용어 502개로 집계된다.
- 11) ‘교과’는 교육과정상 과목 명칭을 ‘교과서’는 ‘교과서명, 학년, 학기’ 정보를 뜻한다. 예를 들어, 1학년 ‘국어’ 교과에는 ‘국어1-1’, ‘국어1-2’, ‘국어활동1-1’, ‘국어활동1-2’ 교과서가 있다.

교과 전문어 관련 정보	초등학생용 국어사전에서의 교과	교과
	양정실 외(2015)의 교과	교과
	양정실 외(2015)의 교과 해당 교과서 최초 출현 정보	학년, 교과, 교과서명(학년-학기), 교육과정, 빈도
선행 연구 및 사전 메타분석 정보		〈표 1〉의 선행 연구에서의 등급 및 초등 사전 수록 어휘 메타분석 결과

위 표에서 ‘교과서 출현 정보’는 3개 교육과정(위의 ㉠)의 국정·검정 교과서 전권을 대상으로 하되,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과거 교육과정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출현 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재 시 이전 교육과정으로 넘어가서 검색하도록 했다. 어휘의 출현 빈도와 범위(range) 파악을 위해 최초와 최다 출현에 대한 교과서 정보를 ‘학년-교과(교과서명)-교육과정-빈도’ 형식으로 정했다. ‘최초’ 출현과 ‘최다’ 출현 교과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일치 여부도 부기하도록 했다.¹²⁾

또한 어휘 범주¹³⁾ 파악을 위해서는 교과 전문어 관련 정보 수집이 필요하여, 초등학생용 국어사전에서 표제어와 함께 실려 있는 교과 표지를 기입하기로 했다. 하나의 어휘가 여러 교과서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교과 전문어 판별의 기준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등학교 교과별 어휘 실태 연구인 양정실 외(2015)에서의 교과 정보를 대비하였으며, 이 교과 정보에 해당하는 교과서 중 어휘가 최초 출현한 정보 역시 기입하기로

12) 이 두 가지 정보는 어휘에 대한 초기 등급화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최초 출현 교과서가 최다 출현 교과서에 비해 가짓수가 적은 관계로, 최초 출현 교과서 정보가 최다 출현 교과서 정보에 포함되는 부분적 일치의 경우에도 ‘일치’로 간주했다.

13) 통상 Nation(1990: 19)의 범주 구분과 같이, 일상어, 사고도구어, 전문어(교과 전문어)로 대별하며, 어휘 평가 구상 시 어휘 범주가 골고루 출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했다.¹⁴⁾ 이어서 어휘에 대한 초기 등급화를 염두에 두고, 어휘의 교과서 출현 정보가 부재할 시 초기 등급화 기준으로 삼을 만한 선행 연구 등급 및 초등학교 국어사전에서의 메타분석 결과를 기록하기로 했다.

이상의 연구 내용 협의에 따라 언어정보연구원에서 수행한 결과물의 일부를 예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어휘 정보 구축의 일부 예시

초기 등급: 1~2학년군					
국어사전 정보	단어	길잡이말	원어	품사	뜻풀이
	대각선	(없음)	對角線	명	사각형 이상의 도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짓점을 잇는 직선, 또는 사면체 이상의 다면체에서 같은 면 위에 있지 않은 두 꼭짓점을 잇는 직선. 맞모름.
교과서 출현 정보	교과서 최초 출현 정보		교과서 최다 출현 정보		학년 일치 여부
	1-통합(겨울1-2)-2015-1회		4-수학(수학4-2)-2015-9회		불일치
교과 전문어 관련 정보	양정실 외(2015)의 교과		양정실 외(2015)의 교과 해당 교과서 최초 출현 정보		초등학생용 국어사전에서의 교과
	수학		4-수학(수학4-2)-2015-9회		수학

2. 교육용 어휘 선정 및 어휘 정보 구축

1차 목록과 어휘 정보 구축 이후, <그림 1>의 단계 ②에서는 1차 목록에 대한 검토 및 교육용 어휘 선정이 이어졌다. 1차 목록에 대한 검토 결과, 어

14) 양정실 외(2015)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교과의 교과서에서의 어휘 실태를 조사한 연구이다. 단, 여러 교과에서 출현하는 어휘에 대한 처리 과정이 다른 관계로 교과 전문으로의 범주 구분 시 부수적 자료로만 참고했다.

휘 수집을 위한 기초 자료부터 이미 상당히 교육적 목적을 지향하는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목록의 기초 자료인 초등학생용 국어사전의 머리말 중 일부를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나온 7차 개정 교과서와 2013년에 나온 1, 2학년 통합 교과서에 새로 나오는 낱말을 올림말로 뽑아 보았습니다. 또 교과서 밖에서도 그동안 새로이 생겨난 많은 낱말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주 쓰거나 꼭 알아야 할 낱말을 가려 뽑았습니다(토박이사전편찬실, 2014).

위 사전뿐 아니라 초등학생용 국어사전류는 당초부터 교육 목적을 염두에 두고 ‘알아야 할 어휘’를 표제어로 선정하고 있으며, 교과서 어휘를 거의 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¹⁵⁾ 또한 1차 목록 중 교과서 출현 정보가 있는 어휘가 33,110어휘에서 10,861어휘를 제외한 22,249어휘이고, 선행 연구의 어휘 등급화 목록들 역시 교과서 출현 정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1차 목록의 구축은 ‘초등학교 수준 어휘’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이미 상당히 교육용 어휘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1차 목록을 교육용 어휘로 수용하되, ‘등급화’를 염두에 두었기에 제외된 585어휘의 교육용 어휘로의 포함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전문가 집단(국어교육 전공자,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의 판정 결과 15어휘¹⁶⁾를 교육

15) “쉽고 자세하고 정확한 뜻을 수룩해 초등학생들이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를 포함한 3만 천 개의 어휘로 구성됨(김낙준, 2014).”, “4만여 개의 초등학교 교과서 주요 낱말을 통해 교과서 ‘국어사전 찾기’ 필수 단원을 완벽하게 대비(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0)” 등으로 교육 목적의 성격을 볼 수 있다. 기타 초등학생용 국어사전 역시 마찬가지로, “개정된 초등학교 교과서 전 과목의 주요 낱말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낱말을 골라서 수록하였으며, 뜻풀이는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풀이하고 쓰임새가 많은 뜻을 중심으로 올렸다(민중서림 편집국, 2020).” 등이다.

16) ‘고향, 마흔, 박물관, 복잡하다, 볼펜, 사용하다, 쉼, 안녕하다, 양복, 여든, 인사(人土), 일흔, 중요하다, 필요하다’

용 어휘에 포함하여 33,125어휘를 목록화했다.

더하여, <그림 1>의 단계 ②에서는 신명선(2004)의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 목록 3,615어휘 중 1차 목록에 존재하는 1,653어휘를 제외하고 1,962어휘에 대한 포함 여부도 검토했다.¹⁷⁾ 사고도구어는 이기연(2012), 최운선(2013), 차경미(2020) 등에서도 어휘 교육 및 평가에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보라미(2010)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학습활동의 지시문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다만 신명선(2004)의 사고도구어는 중등학교급까지 모두 포함된 목록이므로, 초등학교 수준의 사고도구어 선정에 대한 연구인 이보라미(2010), 정남영(2014)¹⁸⁾의 선정 어휘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1,962어휘 중 310어휘를 포함했다. 사고도구어의 보강 후 각각에 대한 국어사전 정보를 부기하였으며 전체 어휘 목록에 대해 ‘일상어, 사고도구어, 교과 전문어’ 범주 정보를 추가로 태그하여 추후의 어휘 평가 문항 구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2차 목록’이 구축되었다.

17) 신명선(2004: 1)에서는 사고도구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여러 학문 분야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단어들로서, 인지 학술적 언어 능력 신장의 기반이 되는 단어들’이다. 교과서나 논문, 단행본 등을 읽거나 논리적인 글을 쓰거나 학술적 토론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들이다.” <그림 1> 내 ②의 ‘3,615어휘’는 부록에 제시된 어휘 중 ‘관련 단어’까지 모두 포함한 개수이다. ‘관련되다, 대체하다, 명백하다, 상반되다, 적용하다, 탐색하다’ 등은 중복 어휘의 예이다. 신명선(2004)에만 있는 어휘 중 ‘배치하다, 연계하다, 출현하다’ 등은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로 선정된 예이고, ‘기인하다, 대두되다, 주지하다’ 등은 초등학교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어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로 선정되지 않은 예이다.

18) 이들 연구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사고도구어 연구이나, 초등학교 교과서 추출 방식으로 구축한 사고도구어 목록 중 교과서에서 ‘고빈도’로 출현하는 어휘를 특정했다는 점이 모여 화자 대상 목록과의 차이점으로 발견된다. 교과서 추출 어휘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도 수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남영(2014)의 경우, 2013년 당시 사용 중이던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3~6학년) ·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1~2학년)에 대해 말뭉치를 구축하고 신명선(2004)의 사고도구어 목록과 비교했는데, 말뭉치 중 689어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단계 ③의 ‘3차 목록’은 초등학교 교사 집단이 선정한 어휘를 2차 목록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정 중이다. 우선, 전국 23개 초등학교¹⁹⁾ 교사 23명 집단이 어린이 도서²⁰⁾ 500권으로부터 선정한 3,000어휘를 목록화하였다. 이어서 서로 다른 도서로부터 중복 추출된 어휘를 제외하고, 어휘 선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어휘에 대한 국어사전 정보를 부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셀쭉하다, 울퉁불퉁, 낫달, 숙지(熟知), 탐문(探問)’ 등이 ‘3차 목록’에 추가되었다. 현재까지의 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이 3,000어휘 중 약 절반 정도는 2차 목록의 어휘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차 목록의 총 어휘 수는 약 35,000어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 분석을 완료한 후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그림 1〉에서 최종 단계인 ④의 ‘4차 목록’의 어휘 중 교과서 출현 어휘가 약 3분의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기존 교육용 어휘 목록의 교과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문제시한 비판이 동일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²¹⁾ 그러나 기존의 교육용 어휘가 연구 자료로 삼았던 교과서들은 당대의 교과서 또는

19) 전국 6개 시도교육청(광주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23개교이다.

20) 어린이 도서는 도서 선정 위원회(교수, 교사, 아동 도서 연구회 전문가 등의 협의체)의 심의, 교대 교수진과 초등학교 교사진의 검토를 거쳐서 학습 가치가 충분한 도서들로 선정했다.

21) 교과서는 조남호(2003: 16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휘 사용이 통제된 자료로 국어 사용자들의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양상과는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삼형 외(2018: 116)에서 기초 어휘와 김한샘(2009)의 교과서 어휘 조사 결과를 대비한 결과, “2등급 이상 기초 어휘 5,000개의 약 36%의 어휘가 교과서 어휘 목록과 겹치는 것”임을 발견한 바 있다. 이는 교과서 어휘와 일상적 언어생활의 거리가 반드시 멀지만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용 어휘 선정의 목적, 즉 ‘학습자가 알아야 할 어휘’를 알게 하고자 어휘 목록을 선정한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양상’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교육용 자료에서의 ‘실제성’ 추구와도 연관된 문제로, 실제성 있는 교육용 자료가 우수한 교육용 자료인 것은 아님(이관희, 2012: 194-195)을 참고할 수 있다. 상세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 서므로 후고를 기약한다.

몇몇 과목의 교과서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3개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정 및 검정 교과서 전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보다 폭넓은 어휘 목록이 추출되었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료의 실체성’이 강조된바 이후 발행된 교과서들 역시 그러한 기조를 따르고 있다는 점 역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도서로부터 추가로 선정된 어휘 약 3,000어휘 중 30% 정도가 교과서 어휘와 겹치는 것으로 관찰되는 점 역시 교과서 어휘가 다양한 맥락을 포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된 교육용 어휘 목록은 국어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어휘 전체를 기초 자료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한 김광해(2003)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존 교육용 어휘 목록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IV. 어휘 등급 설정 및 등급 보정 절차 구성

1. 어휘 등급 설정

교육 시기와 ‘교육용 어휘’의 일대일 대응을 상정하기보다는 ‘정도성’을 고려하여 같은 단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학습되어야 함을 강조한 신명선(2007: 368)의 의견은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행된 교과서 및 어린이 도서 등이 초등학생의 어휘력 수준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여 집필되었는지에 관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초등학생 대상의 어휘 평가 결과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학년 정보를 제외하고 대규모 어휘 목록에 대한 일관성 있는 초기 등급 부여 기준을 설정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본 연구의 교육용 어휘는 ‘학생들이 해당 학년에서 알아야 하는 어휘를 알고 있는가?’에 답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산출이라는 연구 목표를 달

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기 등급화의 일차적 기준을 교과서 학년 정보에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양정실 외(2015)에서 교과별 대표적 어휘에 대한 이해도 검사 대상 어휘 선별 시 한 어휘가 교과서에서 최초로 출현하는 학년군을 기준으로 초기 수준을 가정한 점을 따라, ‘최초로 출현한 학년’ 정보를 따랐다. 단, 학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선행 연구의 어휘 등급에 대한 메타 분석 및 정성적 판단, 전문가 협의회 등으로 초기 등급화를 수행하기로 했다. 초기 등급은 교육 전문가 심의를 거쳐 ‘등급’으로 설정되도록 했다.

이에 위탁연구사업의 초기 등급화는 어휘 정보(앞의 <표 1> 참조)를 바탕으로 역대 교과서에서 최초로 출현한 학년을 기준으로 하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출현 정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최근 교과서에서 출현 정보가 없을 시 과거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거슬러 올라가 검색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33,110어휘 중 교과서 최초 출현 정보를 기준으로 초기 등급화를 할 수 있는 어휘는 22,249어휘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은 ‘학년군’ 단위로 설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크게 3개 급간으로 나누되, 학생의 학년에 맞는 어휘 문항 제공 및 추후의 등급 보정을 위해 초출 학년 기준으로 6개 급간으로 세분했다. 33,110어휘 중 학년 정보가 없는 10,861어휘는 선행 연구와 정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학년군에 배치되었다.²²⁾

22) 일례로, 6,405어휘에 대해 김광해(2003)의 1, 2등급은 1~2학년군, 3등급은 3~4학년군, 4등급은 5~6학년군으로 초기 등급이 부여되었다. 이는 김광해(2003)의 연령에 따른 등급 구분에 의하면 초등학교급은 모두 3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점과 일치하지 않는 처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위탁연구사업이 ‘초기’ 등급화에 대한 것이었으며, 어휘 등급의 미세 조정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어휘 수준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초기 조치가 필요하므로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어휘 평가 결과를 반영한 등급 보정 시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표 3>은 위탁연구 결과 데이터를 학년 단위로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 초기 등급화에 따른 등급별 어휘 수

학년군	어휘 수	초출 학년	어휘 수
1~2	5,581	1	2,595
		2	2,366
		없음	620
3~4	10,129	3	4,528
		4	4,196
		3~4 ²³⁾	61
		없음	1,344
5~6	17,400	5	4,721
		6	3,782
		없음	8,897
합계			33,110

여기서 ‘최초 출현 학년’이라는 기준은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위탁연구사업의 연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최초 출현 학년과 최다 출현 학년이 일치하는 경우는 16,339개, 불일치하는 경우는 5,910개로 나타난다. 불일치하는 경우 무엇을 등급화 기준으로 적용할(혹은 우선시할) 것인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최초 출현 학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어휘 등급화 기준으로 흔히 적용되는 ‘빈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표 2〉의 ‘대각선’의 경우와 같이 최초 출현의 출현 빈도가 ‘1회’인 경우가 70%를 상회하는바, 우연적 출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사 ‘관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학년 통합 교과서에서 최초로 1회 등장한다. 그런데 교과서 집필자가 과연 ‘관련’을 교육용 어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였

23)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학년군으로만 발행된 ‘미술’ 교과서에서만 초출된 경우이다.

는지 회의적일 수 있으며, ‘관련’이 1학년 수준의 어휘라는 점은 직관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각선’이 1학년에서 비록 1회만 출현했을지라도,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알아야 하는 어휘’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학년에서 최다 출현하며 통상 수학 교과 전문어로 인식된다고 하여 그 외 경우에 출현한 ‘대각선’을 무시하고 4학년에 등급화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또 다른 예로 ‘게이름’의 경우, 최초 출현 ‘3-음악(음악3)-2015-1회’, 최다 출현 ‘5-음악(음악5)-2015-10회’로 나타난다. 이로써 ‘게이름’은 3학년보다는 5학년에 더욱 집중적으로 학습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3학년 단계에서부터 알아야 할 어휘에 대한 앎²⁴⁾이 점차 심화·확장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3학년을 ‘게이름’의 초기 등급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더하여, 초등학생 어휘력 평가 연구인 최운선(2013: 120)에서는 “빈도수가 1인 경우의 낱말은 대개 문화전승이나 교과학습어, 또는 사고도 구어에 해당하는 낱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며 낮은 빈도수 어휘에 대한 평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등급화는 어휘 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등급 보정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빈도수가 낮더라도 최초 출현 학년을 초기 등급화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초기 등급에 대한 등급 설정 심의에서도 이를 준용했다.

한편, 학년 내 최다 출현 빈도의 경우, 적게는 ‘현존하다’의 2회에서 많게는 ‘대륙’의 54회, 극단적으로는 ‘지역’의 290회 등으로 최다 출현 빈도 간 편차가 큰 편이다.²⁵⁾ 이렇게 편차가 클 경우, 빈도 차이를 기준으로 한 어휘별 가치치 부여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최초 출현과 최다 출현 각각의 빈도는 균일하지만 학년과 범위가 여러 교과에 걸쳐 있는 경

24) ‘어휘에 대한 앎’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는 신명선(2007) 참조.

25) ‘현존하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서 2회, ‘대륙’은 54회, ‘지역’은 3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서 290회로 관찰된다.

우도 있다. ‘팽팽하다’와 같이, 최초 출현 ‘3-과학(과학3-1)-2015-1회’와
 최다 출현 ‘3-과학(과학3-1)-2015-1회, 5-도덕(도덕5)-2015-1회, 6-체
 육(체육6)-2015-1회’가 그 예이다. ‘이용’과 같이 빈도수가 다양하며 학년
 과 범위도 다양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용’의 최초 출현 정보는 ‘3-과학(과
 학3-1)-2015-3회, 3-사회(사회3-1)-2015-2회, 3-과학(실험관찰3-1)-
 2015-3회’, 최다 출현 정보는 ‘6-실과(실과6)-2015-9회, 6-체육(체육6)-
 2015-9회’이다.

이처럼 초기 등급화의 기준을 최초 출현 학년으로 설정하더라도, 최다
 출현 학년, 빈도, 범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등급에 대
 해 교육 전문가 심의를 거쳐 등급을 설정하는 방법 외에, 빈도·범위·산포
 도 등에 대한 분석이 등급화 기준 설정에 요청될 수 있다. 이에 이삼형 외
 (2018)에서 어휘 등급화의 방법론으로 정밀화한 가중치 산정을 본 연구의
 등급화 기준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삼형 외(2018)에서는 한국인
 대학생 146명 대상의 어휘에 대한 직관 판단 실험을 통한 빈도, 범위, 산포도
 에 기반한 어휘 점수를 산출하고 MANULEX의 U값에 따른 기초 어휘 순위
 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어휘별 가중치를 결정했다.

그런데 어휘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방식은 어휘 등급화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앞서 인용한 국어연구소(1987ㄱ:
 3, 본 논문 5쪽 참조)의 목적을 계승하여 “학생들의 학습 어휘 및 사용 어휘
 정보를 축적하여 학년군별 어휘 자료를 구축, 향후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교
 과서)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²⁶⁾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장기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학년 학생들이 그 학년에서 학습하는 어휘를 얼
 마나 알고 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해당 학년의 어휘를 그 학년에서 학습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어휘마다 동질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휘 목록 선정의 기초 자료 중 특히 교과서 출현 어휘는 ‘알아

26) 앞의 각주 5) 참조.

야 하는 어휘'의 성격이 강하므로, 출현 교과(즉 범위)와 교과별 빈도에 대한 정보를 구축은 하였으나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동등하게 평정했다.²⁷⁾ 또한 교과서 출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김광해(2003)의 3등급 어휘를 수용함으로써 메타 계량에 따른 점수 부여 방법도 간접적으로 일부 반영된 셈이므로 가중치를 추가로 계산하지 않았다.

한편, 위탁연구사업 결과 중 초등학교 수준 어휘로 선별되지 않은 585 어휘(즉 초기 등급화 제외 어휘) 중 교육용 어휘로 추가 선정한 15어휘는 기초 어휘적 성격이 강하므로 1~2학년군으로 등급화하였다. 신명선(2004)의 사고도구어 목록으로부터 추출한 310어휘(앞의 <그림 1> 참조)는 신명선(2004)의 초등학교 고학년 적합성 견해에 따라 5~6학년군으로 등급화했다. 초등학교 교사 집단이 어린이 도서로부터 선정한 3,000어휘 역시 교과서 출현 정보가 없다. 따라서 전문가 협의회(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국어교육 전공자)에서 교육용 어휘 목록 확정에 더하여 초기 등급 판정 및 등급 설정까지 진행 중이다.

2. 어휘 등급에 대한 보정 절차 구상

등급화된 모든 어휘는 온라인 어휘 평가를 통해 그 수준이 검증될 예정이다. 양정실 외(2015)에서 실시한 교과별 어휘 42~50개씩에 대한 인지도 검사와 달리, 대규모 어휘에 대해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등을 평가하는 문항이 활용될 것이다.²⁸⁾ 내년도 상반기에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소재의

27) 이 정보가 어휘 등급화 기준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어휘 평가 문항 출제 시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일례로, 교과별 고빈도 어휘 정보는 어휘 범주 중 교과 전문어의 판별 및 출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추후의 어휘 등급 보정 시에도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28) 어휘 전수를 평가하되, 1회의 평가 내에서 어휘 범주(일상어, 사고도구어, 교과 전문어)가 모두 포함되도록 설계했다. 구체적인 검사지 구성과 평가 문항 유형의 설정은 지면의 제약상 별도 논문으로 추후 다루도록 한다.

3개 연구학교 926명에 대한 시범 운영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²⁹⁾ 연구학교에서는 등급화된 어휘 중 우선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어휘 각각에 대해 20회 이상 평가될 것이며, 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등급 보정 절차를 시범 적용해 볼 예정이다. 전국 운영 시기에는 등급화된 어휘 전체의 각각에 대해 200회 이상의 평가가 축적될 것이기에,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에 충분한 인원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용 어휘 목록’과 교육용 어휘 중에서도 ‘평가 대상 어휘 목록’이 동일하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본 연구가 속한 과제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되 대규모 어휘 평가를 시도하는 첫걸음이므로 폭넓은 평가 결과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교육용 어휘 목록 전수를 평가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용 어휘 목록의 등급별 평가 대상 학년을 배정한 안은 다음과 같다.

〈표 4〉 교육용 어휘 목록의 등급별 평가 배정(안)³⁰⁾

학년군 수준	어휘 수	학년 수준	어휘 수	평가 대상 학년
1~2	5,596	1	2,595	3학년
		2	2,366	3학년
		없음	635	3학년
3~4	10,129	3	4,528	3, 4학년
		4	4,196	4, 5학년
		3~4	61	4학년
		없음	1,344	4, 5학년

29) 1~2학년은 교육과정상 한글 해득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되었다. 교육부(2020. 10. 5.)의 [교육부 10-06(화) 조간보도자료] 6쪽 참조.

30) 〈표 3〉에 추가 선정 어휘를 더한 수치를 바탕으로 평가 응시 학생 정보를 배당한 것이다.

5~6	17,710	5	4,721	5, 6학년
		5~6	310	5학년
		6	3,782	6학년
		없음	8,897	6학년
미정	1,500~3,000	미정	1,500~3,000	
합계			약 35,000	

연구 취지를 바탕으로, 초기 등급화와 동일한 학년의 학생이 평가 문항을 푸는 것을 기본 배정으로 했다. 그러나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 교과서 재구성으로 교수학습이 실행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과 전문어의 경우, 해당 학년에서 학습을 한 이후라야 ‘해당 학년 어휘를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기에 타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휘의 초기 등급화 학년보다 하나 상급 학년의 학생들도 어휘 문항 풀이의 대상으로 배정했다. 학년군 수준 내 학년 수준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학년 수준 ‘없음’과 3~4, 5~6)는 상대적으로 상급인 학년에게 배당하되,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배정된 어휘 총량이 적은 쪽으로 배정을 수정하여 수적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다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년 수준이 뚜렷하지 않은 어휘가 급증하는바(5~6학년군 수준의 학년 수준 ‘없음’ 8,897어휘) 6학년 학생의 평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인지적 발달에 따라 평가 1회에 포함되는 어휘 수도 늘어나므로 평가가 가능한 양이라고 가늠했다.

온라인 평가 시스템은 학생의 학년에 따라 위에서 논의한 배정(안)에 맞추어 등급별 어휘 문항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어휘 등급 보정 후보군이 축적되도록 개발 중이다.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¹⁾

31) 어휘에 대한 등급 보정이 반복되다 보면 초기 등급과는 점차 다른 양상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정된 등급에서는 ‘학년군’ 대신 ‘초급~고급’, 미세 조정용 ‘학년’ 대신



〈그림 2〉 어휘 등급 보정 절차(안)

평가 결과를 반영한 어휘 등급 조정 방법은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먼저, 절대적 기준을 정하여 개별 어휘(어휘1, 어휘2, ... 어휘N) 각각에 대한 학생들의 누적 정답률을 기준으로 어휘 등급 상향 조정 후보군, 하향 조정 후보군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급간 구분의 기준점이 되는 정답률 수치에 대해서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임의로 설정해 둔 후 학생 평가 결과 데이터가 축적되면, 데이터 분석 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초기 기준점으로는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어휘별 정답률 60% 미만일 경우, 어휘 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수준으로의 하향 조정의 초기 기준은 Nation, I. S. P.(1990)의 텍스트 화제 이해 수준을 적용하여, 어휘별 정답률 80% 이상일 때 어휘 등급 하향 조정 후보군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답률 백분위의 상대적 순위를 중심으로 어휘별 누적 정답률의 백분위(등위)를 서로 비교하였을 때 상위과 하위 각각의 2.3%(2표준편차) 범위에 속하는 어휘를 하향 조정과 상향 조정 후보군으로 설정하여 조정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어휘 등급 조정 기준 설정의 이론적 어려움을 대신하여, 실제 정답률 데이터에 기반하여 어휘 간 상대적 순위의 상하위 양 극단에 속한 어휘를 등급 조정 후보군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이 방

‘수준’으로 지칭했다.

식은 평가 회차별 평균 정답률과 무관하게 평가 회차마다 등급 조정 후보군이 되는 어휘 수를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모인 등급 조정 후보군 및 6학년 수준 초과 어휘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통해 보정 등급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의 평가를 시행하며 등급 조정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각각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비교하면 등급 보정 기준으로서 타당한 기준값 및 두 방법 각각에 부여할 수 있는 최적의 가중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고 등급화하였으며 초등학생 대상의 어휘 평가 결과 분석을 근거로 한 등급 보정을 설계했다. 먼저, 위탁 연구사업을 통해 역대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출현 어휘 및 초등학생용 국어사전 표제어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추출한 어휘 등을 근간으로 하고 필자 및 교육 전문가의 검토와 추가 작업 등을 거쳐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목록과 어휘 정보를 구축했다. 이어서 교과서 출현 정보와 선행 연구의 등급화 결과 및 전문가 협의회의 판단을 근거로 등급화를 수행했다. 등급화된 어휘에 대해서는 증거 기반 타당화를 위해 전국 초등학생 대상 어휘 평가를 온라인 시스템에서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어휘 평가 결과 데이터 중 어휘별 정답률, 어휘별 정답률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등급 조정 후보군이 수집될 것이며, 그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기반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등급 보정이 실행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년 정보와 전문가 평정 중심의 어휘 등급화 및 어휘 평가를 통해 학생의 실제 이해 정도를 반영하는 어휘 등급 보정 절차를 구안했다. 이는 교육용 어휘의 등급을 연구자 및 교수자의 시각에서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설정한 기존 관점뿐 아니라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정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어휘 학습 활동에 어휘 등급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³²⁾ 본 연구 결과 활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휘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어휘의 인지적 간격을 확인하고,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교육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휘 평가 결과 데이터가 장기간 축적되면 등급별 대표 어휘 선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어휘 진단 평가를 위한 어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용 어휘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용 어휘를 이해 어휘 중심으로 접근하여 표현 어휘 중심적으로는 살피지 못했다. 문어 어휘 중심의 기초 자료 수집으로 인해 구어 어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다. 표현 어휘와 구어 어휘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용 어휘 선정 차원에서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 평가 관련해서는 평가에 응시하는 학생 집단의 학년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평가 설계 면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1~2학년군 수준 어휘를 1~2학년 학생에게 평가하지 못하고 3학년 학생에게 평가하는 제약 및 중학생이 6학년 수준 어휘 문항에 접근할 수 없는 제약으로 인해, 1~2학년군 수준과 6학년 수준으로 초기 등급화된 어휘에 대해서는 3, 4, 5학년 수준 어휘에 비해 등급 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추이를 지켜보며 대안 모색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축적되는 어휘 관련 자료가 초등학생들의 어휘 교육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며, 학계에서 교육용 어휘 등급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0. 10. 31. 투고되었으며, 2020. 11. 16. 심사가 시작되어 2020.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32) 한 심사위원 선생님의 심사 의견 중 일부를 윤문하여 인용하였다.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1. 사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판), 서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인터넷판), 서울: 국립국어원.
김낙준(2014), 『푸르넷 초등 국어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민중서림 편집국(2020), 『초등학교 민중 새 국어사전』, 파주: 민중서림.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2020), 『연세초등국어사전』(개정판), 서울: 동아출판사.
토박이사전편찬실(2014), 『보리 국어사전』, 파주: 도서출판 보리.

2. 논저·자료

- 강보선(2013),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7, 125-152.
강현화(2014), 「한국어교육용 초급 어휘 선정 연구」, 『문법교육』 21, 1-26.
곽재용(2010),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분석」, 『한글』 290, 265-294.
곽재용(2012), 「“한국어 교육과정” 부록에 제시된 어휘 목록 분석」, 『배달말』 51, 305-328.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0. 10. 5.), [교육부 10-06(화) 조건보도자료] 초등 저학년 학부모임, 안심하세요! 한글·수학 책임교육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검색일자 2020. 10. 31., 사이트 주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214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3&s=moe&m=020402&opType=N>.
국립국어연구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연구소(1987ㄱ), 『국민 학교 교육용 어휘(1, 2, 3학년용)』, 서울: 국어연구소.
국어연구소(1987ㄴ), 『국민 학교 교육용 어휘(4, 5, 6학년용)』, 서울: 국어연구소.
국어연구소(1988), 『중학교 교과서 어휘(국어, 국사)』, 서울: 국어연구소.
국어연구소(1989), 『중학교 교과서 어휘(도덕, 사회)』, 서울: 국어연구소.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서울: 박이정.
김수진·오경아(2014), 「학령전기 아동 성별에 따른 의미 범주별 동사 사용 비교」, 『보완대체의 사소통연구』 2(2), 139-154.
김한샘(2009),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김한샘(2010), 「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 『국어교육연구』 47, 63-90.
문교부(1955), 『우리말 글자 사용의 찾기 조사-문자 빈도 조사-』, 서울: 문교부.

- 문교부(195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 어휘 사용 빈도 조사』, 서울: 문교부.
- 서상규·유현경·봉미경·강신아·김선휘(2009),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성광수(1999), 「어휘부의 구조와 기초어휘의 활용」, 『선청어문』 27(1), 101-133.
- 신명선(2004), 「국어 사고도구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명선(2007), 「단어에 대한 삶의 의미에 기반한 어휘교육의 방향 설정 연구」, 『국어교육』 124, 349-386.
- 양정실·권점례·신호재·박재현·오필석·이미미(2015), 『초등학교 교과서의 어휘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지훈·양윤정·전효선·안종욱·김혜연·윤천탁·장충덕(2016), 『교과용도서의 교과별 어휘 표준 구축 방안(1): 표준화 대상 어휘 선정 및 목록화』,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경남·박혜림·이경화(2018), 「한글해득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 연구」, 『청람어문교육』 65, 213-235.
- 이관희(2012), 「문법교육에서 텍스트 중심 통합의 방향 탐색」, 『국어교육』 137, 173-211.
- 이기연(2012), 「국어 어휘 평가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보라미(2010), 「학습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활동 지시문’ 연구」, 『이중언어학』 43, 325-344.
- 이삼형·박진호·최형용·김정선·신명선·신동광·강남욱·이기연·김시정·김수지·이윤희·양세문(2017),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를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이삼형·박진호·최형용·김정선·이승연·이현주·신명선·이기연·김시정·허인영·김혜지·김수지·이윤희·양세문(2018), 『2018년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이응백·이인섭·김승렬(1982), 「국민학교 아동의 어휘력 조사 연구-저·중·고 학년별 표준 어휘목록의 작성-」, 『국어교육』 42, 235-242.
- 이진아·편도원·곽승철(2011), 「발달장애아동의 기초 학습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6(2), 29-50.
- 이충우(2005), 「국어 어휘 교육의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24, 385-408.
- 이희자(2003), 「국어의 기초어휘 및 기본어휘 연구사」, 『새국어생활』 13(3), 119-153.
- 임지룡(1991),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3, 87-132.
- 임지룡(1998), 「어휘력 평가의 기본 개념」, 『국어교육연구』 30, 1-42.
- 장현진·전희숙·신명선·김효정(2013), 「영유아의 기초 어휘 선정 연구」, 『언어치료연구』 22(3), 169-187.
- 장현진·전희숙·신명선·김효정(2014), 「초등학생 교육용 기초 어휘 선정 연구」, 『언어치료연구』 23(1), 157-170.
- 조남호(2003 ㄱ),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조남호(2003 ㄴ), 「국어 기본어휘 선정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13(3), 155-169.
- 차경미(2020), 「국어 어휘 수해 전략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운선(2013), 「초등학생 어휘력 평가 기준안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 『‘한 학기 한 권 읽기’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관 및 시·도 업무담당자 워크숍(연구자료 ORM 2020-102)』,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Nation, I. S. P. (1990), *Teaching & learnig vocabulary*, Boston, Mass.: Heinle & Heinle Publishers.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등급화와 등급 보정 절차 연구

최소영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및 등급화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여럿 존재하나, 각 연구 성과로 구축된 어휘로부터 어떠한 변화가 누적되어 왔는지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려우며, 오늘날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용 어휘에 대한 선정 및 수준 설정과 수준 조정의 근거 역시 일반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목록화 또는 선정한 어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이어지지 않았으며 수준 설정에 대한 증거 기반 검증이 부재했다는 점도 한계로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여 등급화를 수행하고 초등학생 대상의 어휘 평가 결과 분석을 근거로 한 등급 보정 절차를 설계했다. 먼저, 위탁연구를 통해 역대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출현 어휘 및 초등학생용 국어사전 표제어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추출한 어휘 등으로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목록을 구축한 후, 교과서 출현 정보와 선행 연구의 등급화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등급화를 수행했다. 이어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초기 등급화 자료를 검토·수정하고 어휘를 추가하여 등급화를 완료했다. 등급화된 어휘에 대해서는 타당화를 위해 전국 초등학생 대상 어휘 평가를 온라인으로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어휘 평가 결과 데이터 중 어휘별 정답률, 어휘별 정답률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등급 보정 후보군이 수집될 것이며, 그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기반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등급 보정이 실행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핵심어 어휘 등급화, 어휘 등급 보정, 교육용 어휘, 초등학교 어휘, 어휘 교육

Study on Educational Vocabulary Grading and Grading Adjustment for Elementary School Education

Choi Soyoung

Although several prior studies on the selection and grading of elementary school vocabulary, it is difficult to continuously examine what changes have been accumulated from the vocabulary established by each research achievement. The basis for selection and level setting and adjustment of educational vocabulary suitable for the level of today's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also difficult to generalize from the prior research results. It is also a limitation that no feasibility analysis has been conducted for the listed or selected vocabulary, and there is no evidence-based verification of the level setting. For the selection, grading, and grading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vocabulary in this study, a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vocabulary corpus was established to carry out the initial grading. Further, the grade correction was designed based on the analysis of vocabulary evaluation result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ypically, the elementary school education vocabulary corpus was established with textbooks' vocabulary appearing according to the previous curriculum. Furthermore, the vocabulary was extracted through a meta-analysis of the Korean dictionary heading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grading was then carried out based on the information on textbook appearance, the results of grading prior research, and the expert council's judgment. For the graded vocabulary, the online evaluation of vocabula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ll be conducted to justify the evidence-based assessment. Based on the students' vocabulary evaluation results, it can be expected that a valid and reliable grade correction will be implemented based on data and expert review.

KEYWORDS Vocabulary Grading, Vocabulary Grading Adjustment, Educational Vocabulary, Vocabulary for Elementary School Education, Vocabulary Education